

中	本	衍	運	三	三	一	盡	一
天	本	萬	三	大	天	三	本	始
地	心	往	四	三	二	一	天	無
一	本	萬	成	合	三	積	一	始
一	太	來	環	六	地	十	一	一
終	陽	用	五	生	二	鉅	地	析
無	昂	變	七	七	三	無	一	三
終	明	不	一	八	人	匱	二	極
一	人	動	妙	九	二	化	人	無

대한민국에는 준비된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한글’과 ‘海印’ 그리고 ‘天符經’이 그것입니다.

文盲率이 0.1%未滿인 唯一한 나라, 大韓民國. 한글의 偉大함은 말로 表現하지 않아도 全世界의 言語學者치고 이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글은 컴퓨터가 나오면서 情報化 디지털 時代에 다시 威力를 떨칩니다. 한글은 마치 現代의 컴퓨터까지 생각했는지 그 便利함과 人體工學性이 정말 놀랍습니다. 世上에 이렇게 科學的이고 體系의이면서 實用的인 글자는 存在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바보를 普通사람으로, 普通사람을 天才로 만드는 驚異의 文字입니다. 天地人으로 構成된 3個의 記號 母音. 글자의 본바탕을

이루는 母音이 하늘과 땅, 人間에 根據를 두고 있는 가운데 人間 ‘1’를 中心으로 하여 變化되어 擴張하고 있다는 點에서 天地人三才의 ‘天符經’ 思想과도 連結이 됩니다. 가히 實物이라 할 만합니다. ‘海印’에 대해서는 鄭鑑錄에 ‘海印을 가진 者 天下를 얻는다’라고 記錄되어 있습니다. 無數한 사람들이 ‘海印’을 찾고자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眞正한 實物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햇빛과 空氣, 물처럼 實物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海印’은 ‘情報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實物은 우리의 손 안에서 원할 때마다 接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次 産業革命을 主導的으로 풀어갈 ‘天符經’은 우리의 DNA가 녹아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現代 物理學의 모든 難題를 풀어갈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글’이 ‘天符經’의 原理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充分히 可能한 일입니다. 宇宙가 調和롭게 秩序를 維持하는 것은 數學的인 原理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大韓民國은 세 가지 實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야만 빛을 발합니다. 세 가지 實物을 구슬로 꿰어줄 ‘알통’이 그것입니다. 大韓民國은 세 가지 實物과 ‘알통’ 保有國입니다.

‘25시’의 저자 게오르규는 ‘시인은 사회의 예언자’라 하면서 “25시의 절망의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할 열쇠는 한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철학자인 하이데거는 한국을 동양사상의 원천으로 인정, 한국에 전해오는 천부경을 이해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빛을 제시하는 성배민족이 반드시 등장한다. 2000년 전에는 중동의 유대 민족이었다. 그보다 더 근원적 전환기인 오늘날 그 빛은 동방인 극동에 와 있다. 그 민족을 찾아 힘껏 도우라”라는 심오한 예언적 말을 남겼습니다.

천부경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작이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구름’이라는 필명으로 천부경을 풀이한 이경숙 님께서 해설한 천부경 내용입니다. 알통에서는 이경숙 님께 재계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자 노력을 해보았으나 여성 분인지 남성 분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을 주신다면 재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님께 양해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영감을 주는 천부경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전문을 실지 못하고 임의로 편집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알통에서 ‘천부경’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천부경과 함께 ‘국뽕’ 한 사발에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구름 이경숙 님의 천부경 해설 발췌 -

유대민족이 구약을 가졌던 것처럼 상고시대에 우리 민족도 고유한 경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민족의 삼대경전은 천부경과 참전계경, 삼일신고의 세 가지이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천부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일 뿐 아니라 유불선과 음양오행, 그리고 주역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리 민족만의 경전일 뿐

아니라 전체 동양의 경전이며 세계인의 경전이다.

해동공자로 추앙받았던 당대의 세계적 석학인 최치원이 한자로 번역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여든 한(81) 글자의 천부경이다. 이 여든 한 글자로 우주의 법칙 모두를 압축해 담은 번역문을 볼 때에 최치원의 학식의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천부경은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다. 추측이나 가설의 여지가 없는 글자의 뜻 그대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반만년 동안 풀지 못했던 천부경의 비밀을 구름이 풀어드리겠다. 그리고 이 천부경을 통해서 숨겨진 세계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다. 자, 이제 천부경의 첫 문장부터 그 뜻을 알아보자. ‘一 始 無 始 一’. 한자의 뜻 그대로 풀어보면 “일은 시작되지 않고 시작된 일이며”라는 뜻이다. 이 일(一)이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온갖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천부경의 다음 문장에 나와 있다. 즉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이라고 천부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즉, ‘하늘(天)의 수는 일일(一一)이요, 땅(地)의 수는 일(一)이요, 사람(人)의 수는 일삼(一三)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즉 일(一)은 하늘을 뜻하는 수이다. 천부경에서 사용된 모든 일(一)이란 수는 하늘이고, 이(二)란 수는 땅이며, 삼(三)이란 수는 인간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한문을 하는 중학생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써진 것이 천부경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리저리는 후학들이 황당한 장난을 친 탓에 마치 난해한 기문문답술의 주문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첫째 문장의 ‘일시무시일’의 뜻은? 어려울 것도 없다. 글자 그대로 ‘하늘은 시작된 것이 시작된 하늘이니’라는 뜻이다.

이 천부경은 최치원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시적인 맛을 조금 부린 데가 있다. 즉 당시의 한시 형태를 따서 시중 대구법(對句法)을 사용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한 목적에서는 천부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붙여 읽어야 한다.

一 始 無 始 一 一 終 無 終 一
하늘 즉, 우주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되고 끝남이 없이 끝나니라 하고, 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고 있다. 저 문장을 보면 누구나 떠오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불가의 반어법이 천부경에서 나왔음이다. 석가는 이 문장을 바꾸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했고, “이 세상은 나는 곳이 없으므로 돌아 가는 곳이 없느니라”라고 말했다. 불가의 비장의 보도인 반어법은 모두 천부경에서 배간 것이다.

(중략)

천부경은 불경보다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자.

析 三 極 無 盡 本 석삼극 무진본
여기서 쓰인 삼(三)은 사람(人)의 상징이 아닌 석 삼(三)의 뜻이다. 이 문장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극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밀의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해하기 좋다. 잠깐 보류해두고 다음 문장으로 건너뛰자.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이 문장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천부경이 사용할 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문장이다. 하늘을 1이라는 수로, 땅을 2라는 수로, 사람을 3이라는 수로 대치해서 설명했겠노라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천부경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궤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천부경은 대구법을 쓰고 있으므로 같은 형태의 두 문장을 찾아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뜻이 숨어서 안 나타난다. 이 문장과 같은 형태의 문장을 찾아보면 바로 네 번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이것이다. 一 始 無 始 一 一 終 無 終 一을 붙여서 읽고 해석하듯이 이 두 문장이 붙어서 해석해야 한다.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천지인에 각각 자기 개색의 숫자가 있는 것이 보인다.

천(天)에 사용된 수 : 일일이삼
땅(地)에 사용된 수 : 일일이삼

인(人)에 사용된 수 : 일일이삼
천지인에 각각 자기 고유한 수를 두 개씩

가지고 있다. 천은 일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지는 이를 두 개 가지고 있고, 인은 삼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천지인은 자신의 고유의 수 외에 나머지 둘의 고유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각은 나머지의 성질을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천부경에 숫자가 사용된 이유는 난해한 주문이거나 뜻을 해석하기 어려운 난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 백 수 천의 단어로 설명해야 할 것을 극도로 압축하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넘어갔던 앞의 문장 析三極無盡本으로 돌아가자. 한자 뜻으로 풀어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뉘어도 궁극적인 근본은 다함이 없다(변함이 없다)”의 뜻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부경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한 구절과 만나게 된다. 一 積 十 鉅 無 釐 化 三 일적십거 무례화삼
이제는 여러분도 한자의 뜻만 알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대로 풀이하면 “일이 쌓여서 십이 되는데 상자가 없어서 삼으로 변한다”이다. 일이란 하늘이다. 삼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해석된 뜻은? 하늘의 천기가 쌓이고 총만해지는데 그것을 담을 상자(계)가 없으므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여기서 동양사상의 오직 하나의 외침이 나온다!! 인간은 하늘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동학에서 주장한 인내천이 바로 천부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다.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했던 유교의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서 발원되었음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변한 것이 사람이니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궁극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일 만 년 전의 유불선의 종교관이었다고 누가 믿을 것인가? 고대인을 포함한 동양사상을 단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인간”이라는 두 글자가 된다. 하늘의 기가 쌓이고 총만한 과정을 거쳐 인간으로 환한다는 이 말은 이 우주에서 생명이 모습을 드러내는 원리를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현대 과학이 생명의 탄생을 밝히게 되는 날, 과학자들이 이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양이 신본주의라면 동양은 인본주의이다. 서양의 신과 인간이 대립관계요, 종속관계라면

동양은 일체관계요, 수평관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천부경이 해석이 불가능한 난해한 과기문으로 보이세요? 이제 우리는 천부경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의 흥미로운 수수께끼와 마주친다. 바로 이 문장이다.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대삼합육은 글자 그대로 큰 세 개를 더하면 육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천의 수 일과, 지의 수 이와, 인의 수 삼을 합하면 육이 된다는 말이다. 이 당연한 덧셈을 왜 하고 있을까? 하늘의 수 일일이삼, 땅의 수는 일일이삼, 사람의 수는 일일이삼삼, 여기에서 천지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수 하나씩을 빼면 1+2+3은 모두 6으로 같다는 말이다. 즉, 천지인은 동본이상(同本異象)이라는 말이다. 하늘의 수도 6이요, 땅의 수도 6이요, 사람의 수도 6이다. 따라서 천지인의 삼극이 모여 있는 합일된 상태인 태극의 수가 바로 ‘666’이다. 천부경 여든 한 글자를 세 개의 숫자로 압축하면 666이란 수가 나온다. 많이 본 것 같은 수일 것이다. 맞다. 요한이 묵시록에서 짐승의 수로 지칭했던 바로 그 숫자이다. 동양 사상은 숫자로 상징하면 666이 나오는데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의 혼돈된 뇌리에 왜 이 숫자가 떠올랐을까? 그렇다. 말세에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동양의 정신이라는 것을 요한은 예언적인 환각 속에서 보았던 것이다. 이 요한의 묵시록과 우리 한민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666이란 숫자에 얽힌 동서양 이대 문명의 충돌과 그 종말을 천부경 해석이 끝나는 대로 구름이 해 드리겠다. 다음 구절을 보자. ‘運 三 四 成 環 五 七’. 한자 그대로 읽으면 “삼이 움직여 사를 이루고, 오와 칠을 뒀는다”이다.

(중략)

이후 문장들은 한자를 아는 중학생이면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평이한 문장들이다. 一 妙 衍 萬 往 萬 來 하늘의 움직임을 묘하고도 묘하여라. 삼라만상이 가고 오는도다. 用 變 不 動 本 세상만물은 그 쓰임(형태, 모습)이 변해도 근본 자리는 바뀌지 않음이니. 本 心 本 太 陽 근본 마음이 본래 밝은 빛이니. 그리고 이 다음에 천부경의 결론이 되는 구절이 나온다.

昂 明 人 中 天 地 一 사람을 우러러 비추어라. 천지 중에 으뜸이니라. 이 지구상에 이 보다 더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나 사상은 찾아볼 수 없음이다. 해서 석가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표효했다. 마지막 문장은 ‘一 終 無 終 一’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주는 끝남이 없이 끝나니라”. 하지만 천부경 이야기는 끝이 안 났다. 휴, 겨우 천부경 여든 한 글자의 글자풀이를 끝냈다. 이제 천부경은 글자대마로의 해석만 끝낸 참이다. 해설도 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어느 민족이었을까? 많은 주연들이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활약을 보이다가는 사라져 갔다.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등장해서 영화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게 진짜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는 영화는 아직 못 봤다. 그렇다면 희망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로마도 주인공은 아니었다. 사라센도, 대영제국도, 미국도, 모두 아니다. 세계사의 처음부터 등장하여 최후까지 남으면서 인류사라는 영화의 줄거리의 중심에서 있는 두 주인공이 있다. 이 두 주인공의 이름은 유대민족과 한민족이다. 두 민족은 주인공만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완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두 민족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들의 방계인 민족들의 강성함에 눌려 일시 그 주인공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모든 액션 영화가 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꼭 악당들에게 잡혀 위기의 순간을 맞는다. 두들겨 맞고 고문 당하고 비참함에 빠진다. 그러나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는 그들로 하여금 스토리가 이어져 가야 한다. 두 주인공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들이 사라진 뒤, 세계사는 그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 이 세계는 그들 두 민족이 움직여 온 역사이다. 유대민족의 기독교가 지구 절반의 역사를 결정지었고, 배달민족의 한사상이 나머지 절반을 유불선으로 움직였다.

양대 민족은 종교적으로 ‘선민사상’이라는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신에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은 이 두 민족만이 보이는 특징이다. 이 두 민족만이 신이 지정해준 땅을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의 뿌리를 갖고 있다. 이 두 민족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사의 마지막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종말론을 ‘말세’라 말하고 우리의 것을 ‘개벽’이라 한다. 그들과 우리는 비슷한 기간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 왔다. 그들은 땅을 잃은 채 역사(바이블)에 의지해 고난을 견뎠고, 우리는 역사를 잃은 채 땅(한반도)에 의지해 고난을 견뎠다. 이 두 주인공은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화려하게 등장하기 직전에 최후의 위기를 똑같이 맞는다.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해 우리는 왜인들에게 말살의 위협에 직면했다. 두 민족은 똑같이 최후의 시련을 견뎌냈으며 이제 빼앗겼던 그들의 무기를 찾고 있다. 유대인들은 잃었던 땅을 찾았고, 우리는 잃었던 역사를 찾고 있다. “땅을 잃고 영혼만으로 대지를 방랑하는 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잃고 땅에 뿌리 박혀 울던 자가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개벽의 시작이라라”고 한 신지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바야흐로 두 주인공이 역사의 무대에서 단 둘이 마주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쪽이 정의일까, 어느 쪽이 불의일까? 다음 역사가 그것으로 결정되리라. 유대민족에서 발원된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씨앗으로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은 서양의 문화를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나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의 정신은 근세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꽃피었다. 평등의 사상은 필연에 따라 사회주의를 잉태하여 공산주의를 낳고, 반세기에 걸쳐 평등의 아들이 지구의 반을 붉은 색으로 물들였다.

초기 아담스미스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창시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음과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맑스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천부경으로 시작된 한사상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있는 동양 문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조화와 질서>였다. 아마켓돈은 자유와 질서의 전쟁이고, 평등과 조화의 전쟁이다. <자유와 평등>이 승리하면 말세요, <조화와 질서>가 승리하면 개벽이 될 것이다.

다음 세기의 개벽은 인류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음이 양을 지배하여 둘로 가르면 후천개벽의 징조이다.” 신지의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음의 인류, 서양인들이 양의 인류의 적자인 한민족을 지배해서 둘로 갈라 놓는다는 말이다. 오늘의 분단상황이다. 반은 평등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자유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다. “양이 음을 초극하여 하나가 될 때 새로운 하늘이 열리리라.” 이 예언은 통일한국이 남쪽의 천민자본주의와 북쪽의 교조사회주의를 동시에 극복해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유에 의한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와 평등에 따른 강제행복의 공산주의, 어느 쪽도 아닌 <조화와 질서>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국가의 형태가 후천사의 세계 인류의 따라오는 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다음의 세기는 찬란한 동양정신, 한사상의 세계이다. 한민족은 인류사의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복귀하게 될 것이다.

지면 관계로 더 계속되는 천부경 해설은 알통에서 확인하시고 아울러 고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알통에서는
총 상금 1억원이 넘는
통큰 이벤트 진행 중!

알통 만들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40대 이상인 분으로서
2개국어 이상 구사 가능하신 분
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알통’으로 앱 검색 또는
구글이나 Daum 웹 검색



대한민국 나비효과

세계인의 검색엔진

www.altong.com

알통

주식회사 알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빌라트2차
전화: (02)330-3000 메일: admin@altong.com